

ODA 리포트

2021
Vol.4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지 26

발행인: 김종덕 담당: 한덕훈, 김정현, 전혜은, 이지인 감수: 조정희

전화번호: 051-797-4666 E-mail: jh-kim@kmi.re.kr/odacenter@kmi.re.kr

발간년월: 2021년 12월 30일



Contents

1

SDGs 관련
국제 동향

2

해양수산 전문가 칼럼

3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4

주요 행사

1 SDGs 관련 국제 동향

UNFCCC

제26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UNFCCC COP 26)

- (국제동향) 26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를 발표¹⁾했고 이 감축목표를 연내 UN에 제출할 예정임. 이외에 국제메탄서약²⁾가입,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 계획 및 석탄발전 폐지 계획을 발표함³⁾.
- 지구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8일 적응기금에 2억 3천 2백만 달러를 투입함⁴⁾.
 - * 적응기금: 기후 변화의 교토 의정서 당사국 중 기후변화의 역효과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적응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위해 2001년 설립된 기금
 - *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카타르, 스페인, 스위스, 영국, 퀘벡, 플랜더즈 연방 등의 국가와 지역들이 적응 기금 지원
- (정책시사점) 해양수산부에서는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화를 위해 진행해 온 해양수산부문의 분야별(해운, 항만, 수산, 해양 흡수원, 해양에서의 CCUS⁵⁾)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 진행과 결과 공유하고 산업계와 민간의 합의를 통해 이를 해양수산분야 산업에 분야별 감축 목표 이행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물론 이 과정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지원과 부처별 감축목표 협의도 지속해야 할 것임.

1) 종전 목표대비 14% 상향

2) 30년까지 '20년 대비 30% 메탄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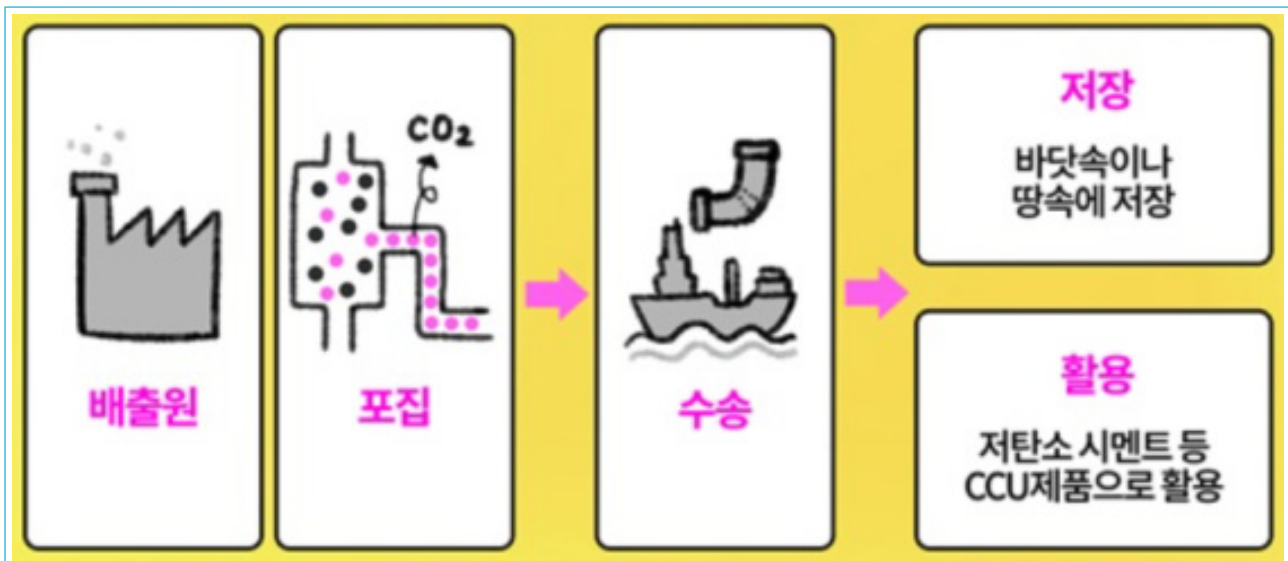
3) 외교부 뉴스·공지,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 2021.11.1. (접속일: 201.11.11.). https://www.mofa.go.kr/www/brd/m_20053/view.do?seq=368324

4) COP 26 UN 기후변화 협약회의 홈페이지; <https://ukcop26.org/uk-cop-presidency-cop-president-daily-media-statement-and-latest-announcements-8th-november/>

5) 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 근원지로부터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Carbon Capture) 필요한 곳에서 사용(Utilization)하거나 지하에 저장(Storage)하는 기술

6)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탄소재출제로를 가능케 할 유일한 기술로 일컬어짐

[CCUS 기술 구조도]



자료 : 'CCUS 기술이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6348>

- 또한, 국제적 차원의 해안의 회복력 강화를 강조하는 회복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 및 부처 차원의 정책 형성과정과 이행과정에 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산하고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정현 전문연구원/ 송미선 인턴
jh-kim@kmi.re.kr/ tat0106@kmi.re.kr

IMO

선박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 전략: GloLitter 파트너십

- (국제동향) IMO는 선박의 해양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전략⁷⁾의 일환으로 IMO와 FAO의 공동 프로젝트인 GloLitter 협력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정부의 예산지원⁸⁾ 하에 진행되며 해운운송과 어업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을 목적으로 2024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해양 운송 및 어업 부문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한 해양 쓰레기의 방지와 절감을 위해 플라스틱 재사용 및 재활용 기회를 지원하고 해양 쓰레기 투기에 대한 IMO의 런던 협약(London Convention London Protocol)⁹⁾ 체제의 이행과 집행 강조를 통해 모든 폐기물은 투기 전 평가 결과에 기준하여 투기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 * 대상지역: 아시아, 카리브해, 중남미, 태평양, 아프리카
- * 리딩 협력국: 브라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및 바누아투
- * 협력국: 아르헨티나,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에콰도르, 감비아,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솔로몬 제도, 수단,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베트남
- (정책 시사점)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50% 저감하고 2050년에는 제로화할 방침임.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 쓰레기 관련 기술 개발과 함께 해양환경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교육 기회의 확대가 필요함.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정현 전문연구원/ 송미선 인턴
jh-kim@kmi.re.kr/ tat0106@kmi.re.kr

7) <https://www.imo.org/en/MediaCentre/HotTopics/Pages/marinelitter-default.aspx> (2021.12.20. 접속)

8) 예산: 4천만 크로네(약 450만 달러)

9) 런던협약: 폐기물의 해양 투기 규제를 통해 모든 해양 오염 발생 원인의 효과적인 제어 및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 <https://www.imo.org/en/OurWork/Environment/Pages/London-Convention-Protocol.aspx>

UNFCCC

제26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26) 종료

- (국제동향) UN 기후변화협약(UNFCCC)은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26차 당사국총회를 진행함. 2주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약 200개국이 기온상승폭을 1.5도로 유지하는 글래스고 기후협약에 동의하고 파리협정 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면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을 완결하였음.¹⁰⁾ COP27은 2022년 이집트에서, COP28은 2023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될 예정
- * 글래스고 기후협약: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과 함께 2022년 현재 배출량 목표인 국가별 결정 기여도(NDC)를 지구온도 1.5도 이내 상승 억제에 맞도록 2030년까지 재검토하고 강화하기로 합의¹¹⁾
- * 파리협정 6조: 탄소 감축분을 매각한 나라와 구입한 나라 모두 탄소감축 기여분을 NDC에 포함시키는 것을 피하도록 규정하고, 공공이나 민간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당사국의 감축기여분에 포함하고 국제적으로 거래가능 하도록 규정함¹²⁾.
- (정책시사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이행¹³⁾과 2023년 범세계적 점검과 2024년 이해경과 보고서 제출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매년 NDC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추후 국제사회의 검토에 제대로 대응해야 함. 즉 국가 차원의 국가감축목표에 대한 이행과 꼼꼼하고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는 COP26 등 관련 동향과 기술 정보를 산업계에 신속히 제공하고,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필요함. 해운·조선업계,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에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 설치와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비용을 보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정현 전문연구원/ 송미선 인턴
jh-kim@kmi.re.kr/ tat0106@kmi.re.kr

10) <https://ukcop26.org/cop26-keeps-1-5c-alive-and-finalises-paris-agreement/> (2021.12.15.접속)

1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40478&cid=43667&categoryId=43667> (2021.12.15.접속)

12) 파리협정 6조: 파리협정 길라잡이pdf - 환경부 참조

13)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한국의 NDC는, IPCC의 권고를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1.5도 목표에 기여하는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음

2 해양수산 전문가 칼럼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사업평가 방향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이후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ODA 예산의 확대와 함께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ODA 통합과 조정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서 기관간 협업과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ODA 사업의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2010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제정하고,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ODA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최근 원조예산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통합과 조정은 물론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가체제 강화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원조규모 확대에 따른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확대와 함께 ODA 시행기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총 42개 기관에 달하고 있고, 시행기관별로 산하기관 및 위탁업무를 통해 ODA 사업을 집행하는 실시기관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체계적·통합적·효율적 ODA 추진을 위해 시행기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사하고 있고, 2016년 이후 관련 부처를 포함하여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제출이 의무화되어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ODA 시행기관은 기관목적과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과제를 선정하고 있지만,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평가의 대표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ODA 시행기관별로 성과관리체계 및 기관역량에 따라 사업성과는 물론 기관별 자체평가 품질에도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현행 평가제도는 각 시행기관이 개별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사업실시기관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다각화되고 있는 사업영역과 수행구조의 분절화로 시행기관내 사업간 연계나 조정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사업이행과 함께 통합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상호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한 ODA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새로운 평가지침에서 강조하듯이 개별프로젝트 중심의 평가보다는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의 사업역량과 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평가를

통해 상호연관적 접근(interconnected approach)을 강화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¹⁾

우리나라 ODA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ODA 시행기관별 사업특성과 수행구조를 분석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역량진단과 성과관리 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자체평가의 경우 구체적인 평가대상 선정기준이 없고 기관별 특성 및 주요 ODA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미흡하여 자체평가와 상위평가가 적절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2018년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장 제6조 평가의 종류에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기관의 사업, 평가체계 등에 대한 진단평가로서 기관평가를 포함하지만, 기관평가를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1년 5월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역량 진단’을 포함하는 「ODA 성과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기관역량 진단을 위한 방법론을 설계하고 시범평가(Pilot Test)를 통해 적용 가능한 기관역량진단 방법과 제도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평가 대상 기관으로 상위규모 3개 기관(EDCF, KOICA, 농식품부)과 중위규모 2개 기관(행안부, 환경부), 하위규모 1개 기관(여가부) 등 총 6개기관을 대상으로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을 효과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적정 항목 및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ODA 사업규모별 대표기관(6개)에 대하여 시범 적용하여 진단 항목 및 기준을 검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기관역량 진단이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기관역량평가 제도 설계 및 시행 방안은 국조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맡아서 기관별 사업 규모, 지원 형태 등 기관별 ODA 추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역량진단 기준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기관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행기관 자체적으로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ODA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 환류의 전 단계에서 성과관리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이 설계되어 자체평가 수행 기반,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품질 관리, 결과의 활용 및 환류 방법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평가의 목적인 책무성 제고와 원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결과보고서 품질뿐만 아니라 자체평가 수행 기반,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품질 관리, 결과의 활용 및 환류 방법까지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1) OECD/DAC(2019), Better Criteria for Better Evaluation: Revised Evaluation Criteria Definitions and Principles for Use, p. 3 참조.

기관역량 진단의 목적이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해 기관별 사업특성과 운영체제에 적합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기관별 평가성 검토, 기관별 사업수행구조와 특성에 부합하는 운영체제 개선사항이 실질적으로 환류되어 우리의 원조공여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2)이를 위해 기관역량 진단결과는 연간평가계획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등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기관평가로서 그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기관평가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권을 소장

〈주요 이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 위원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방문학자

본 칼럼의 내용은 ODA 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KM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2) 권을 외(2020),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정책연구 20-01, p. 24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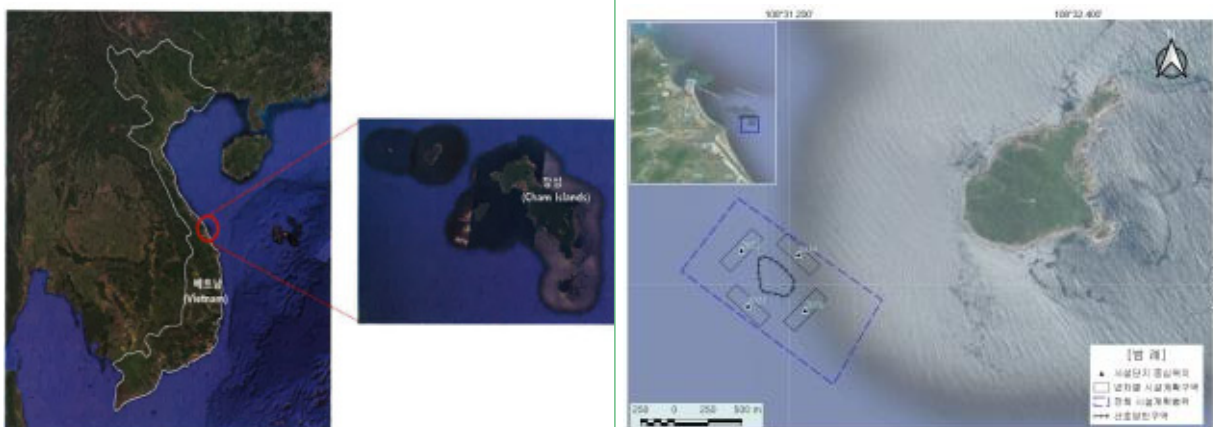
3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베트남

베트남 연안 수산자원 조성·관리 모델 구축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수원국 대상 수산자원 시범단지를 조성(인공어초 150기 제작 및 설치/년)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기술지원·교육 실시, 이후 상태조사 및 서식 생물상조사를 통해 조성지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관리 시스템 개발
- 유관기관·지역어업인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강화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어업인 주체 생태관광모델사업 시범운영 추진
- (사업목적) 베트남 호이안시에서 20Km 동쪽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인 Cham Island 지역의 연간 2만명 이상의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산자원 수요 증가와 토착 어업인 빈곤해소를 위한 수산자원량 증대
- 해양생태관광 수요를 위한 친환경 관광인프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수산자원조성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어촌마을에 수산자원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어업생산성 및 소득 향상에 기여
- (대상) 베트남 꽝남성 호이안시 참섬 인근 해역



사업위치 및 세부 구역도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6년)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자원의 효과적 사용 및 동원 등)
- (2017년) 베트남 호이안시로부터 ”수산자원조성·관리 모델 구축“에 대한 사업요청서 접수
- (2018년) 수혜기관 선정(MPA:참섬해양보호위원회) 후 베트남 연안 수산자원 조성·관리 모델 구축사업(1차년도) 시행
- (2019년) 베트남 연안 수산자원 조성·관리 모델 구축사업(2차년도) 시행
- (2020년) 베트남 연안 수산자원 조성·관리 모델 구축사업(3차년도) 시행
- (2021년) 베트남 연안 수산자원 조성·관리 모델 구축사업(4차년도) 시행
- (2022년) 베트남 연안 수산자원 조성·관리 모델 구축사업(5차년도) 시행 예정

● 기대효과

- 수원국 맞춤형 수산자원조성 모델을 통해 지역환경에 특화된 수산자원 조성·관리 시스템 개발
- 구축된 협력관계에 기반한 지역어업인 주도 생태관광모델사업 운영, 어업생산성 및 소득 향상을 통해 자원 순환형 가치체계 창출
- 수원기관(MPA) 대상 수산자원조성·관리 전문기술 초청연수 및 전문가파견교육을 통해 인적 역량 강화

● 관련 사진



인도네시아

인니 치르본의 해양 및 연안기초 조사와 역량강화 ODA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해양조사연구 장비지원 3차원 해안 및 해저지형 조사 시스템(3차원측심기, 드론, GNSS, 선박, 차량포함), 해저 지층탐사 장비, 해양물리 관측 장비, 해수유동 수치모델 서버, 수질 측정기, 영양염 및 중금속 자동 분석기, 미세플라스틱 분석장비 등
- 치르본 연안 기초조사 치르본 해안지형·수심·지질·수질 및 생태계 조사 및 분석, 해양 및 연안 조사자료 제공 시스템 구축, 치르본해역 해양수치모델 구축, 해양 및 연안 기초조사 지도집 제작, 해양과학기술 기반 연안재해 대응 및 해양환경관리 정책 개발
- 교육·기술훈련 총 70명 해양조사 및 자료분석 전문가 육성 과정 운영, 워크숍 개최

- (사업목적) 연안범람, 침식, 해수오염 등 연안재해의 피해저감과 지속가능한 연안 및 해양 이용을 위한 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9년) 조사연구선 ARA호, 해저지형 조사장비 지원, 치르본 해저지형 기초조사 수행, 석사급 연수훈련 수행(10명)
- (2020년) 3차원 해안지형조사, 해저지층, 수질조사 장비 지원, 치르본 연안 해역 기초조사 (수심, 지형, 지층), 석사급 연수훈련 수행(20명)
- (2021년) 해양물리조사 ADCP, 분광특성분석 장비, 수중탐사 장비, 미세플라스틱 분석 장비, 영양염 자동분석기, 중금속 자동분석기지원, 치르본 연안 해안지형 조사 및 수질 조사 수행, 석사급 연수훈련 수행(20명)
- (2021년) 21년 10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니 방문시,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본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강조, 인니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를 한국정부에 요청
- (2022년) '22년 종료예정인 본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인니 전국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역량 강화 거점 협력대학과 프로그램 운영, 자카르타 교육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 해양 관련 ODA사업의 실습훈련을 협력수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니 해양수산과학 통합역량강화 사업'(2023-27, 총5년) 추진

● 주요성과

- 치르본 ODA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장비와 인력을 한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기존 ODA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극복,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성 확보
- ODA사업성과 활용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인니정부와 관련기관이 포함된 이행협정(IA)를 체결('20.08)
 - ODA 사업으로 확보된 해양연구조사 장비 및 전문가 육성과정으로 양성된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국가 현안 문제를 직접 지원
 - * 스리위자야 항공기 수색 지원('21.01) : 연구조사선, 다중빔음향측심기, 지층탐사기
 - * 인니 산호초 복원 사업을 위한 해양환경조사('20.11) : 연구조사선, 다중빔음향측심기, 드론, CTD
 - * 인니 해조류 양식단지 개발을 위한 해양환경조사('21.11) : 드론, CTD, GNSS

● 기대효과

- 인니 해역의 해양조사를 통해 국가에너지수송로인 인도양 대체항로 개척, 우리나라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 기존 장비 확보 및 해양 기초조사분석 역량강화프로그램 등 실질적 공동연구센터 운영, 親韓 전문가 및 연구자 확보(4년간 석사급 70명)
- 우리나라의 선진 해양과학기술 및 관련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발판 마련(인니 정부의 수산업단지 개발에 해양기초조사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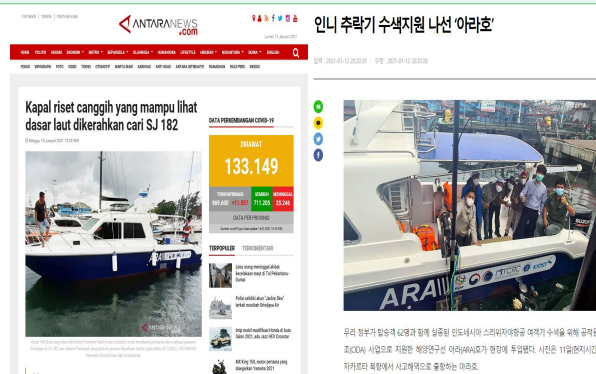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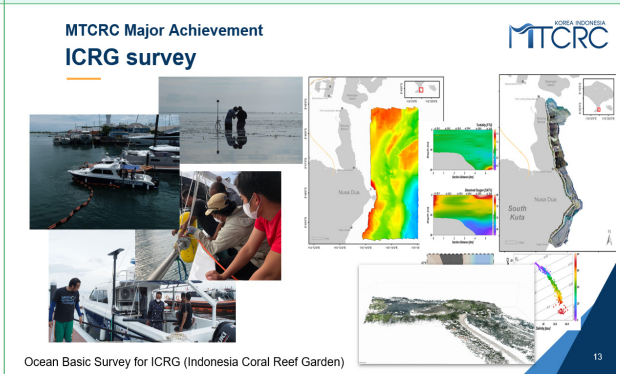
[공여 조사선]



[공여 장비]



[인니 항공기 추락사고시 수색지원에 대한 현지 및 한국 기사('21.1.10)]



[인니 산호초 복원 사업 과학조사('21.6.3)]



[인니 해양ODA IA(이행협정) 체결식('20.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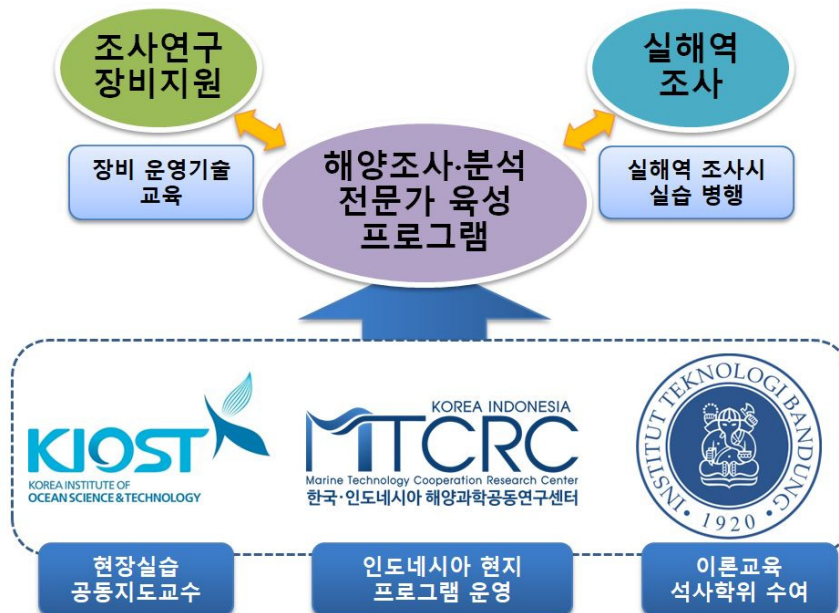


[인니 해양ODA 해양조사장비 공여식('21.6.3)]

● 교육·기술훈련

- 총 70명 해양조사 및 자료분석 전문가 육성 과정 운영, 워크숍 개최
- 기존 ODA사업의 단기간 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 및 연속성 부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대학인 반둥대학교와 협력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
 - 실제적인 실습 교육을 위하여, 실해역 현지조사를 참여하는 것을 학생 의무 조건으로 설정
 - 현재 총 50명 지원(총 70명 지원, '19년도 10명, '20~'22년 각 20명)

[해양조사·분석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추진 체계]



-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한국 과학자 초청 온라인 특별강의 개설 및 운영(11강좌)
 - 온라인 기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2일 프로그램)

● 온라인 기술 교육훈련 관련 사진



Korea-Indonesia Marine Expert Capacity Building Program: Equipment Operation Training Course (Basic)
-Ocean and Coastal Basic Survey and Capacity Enhancement in Cirebon, Indonesia-

Wednesday, 24 February 2021 14:00 - 17:00 WI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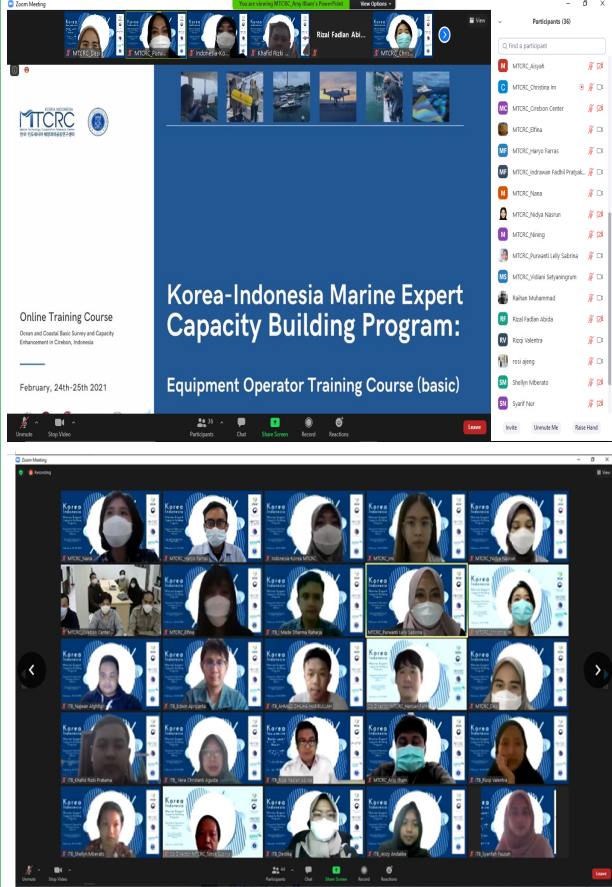
- General lecture on the Oceanographic Survey
- Video playback of oceanographic survey case using equipment of EA 440 SBP Kongsberg Webinar
- Video playback of Bathymetry, Seabed, Water Quality and Sediment sampling Survey

Thursday, 25 February 2021 14:00 - 18:00 WIB

- Drone Survey Class
- Kejawan Survey Drone Presentation
- Video Playback of GPS (RTK) Introduction:
 - How to use the Leica GS18 T GNSS RTK rover
 - GS18T Equipment Explanation
 - RTK Example Utilizing Method

DAY 1 : <http://bit.ly/TrainingCourseDay1>
DAY 2 : <http://bit.ly/TrainingCourseDay2>

온라인 기술훈련 프로그램 포스터



Korea-Indonesia Marine Expert Capacity Building Program: Equipment Operator Training Course (basic)

Online Training Course
Ocean and Coastal Basic Survey and Capacity Enhancement in Cirebon, Indonesia

February, 24th- 25th 2021

Participants (36):

- MTCRC_Ayup
- MTCRC_Christina In
- MTCRC_Chibon Center
- MTCRC_Dilla
- MTCRC_Nayya Faras
- MTCRC_Andreas Fadli Prayoga
- MTCRC_Nara
- MTCRC_Nidya Nasun
- MTCRC_Nining
- MTCRC_Purnawati Laili Sabina
- MTCRC_Vidyan Salyangren
- Rahim Muhammad
- Rizal Faden Abda
- rozi qoni
- Shelly Indarto
- Syaf Far

온라인 교육화면

KIOST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박한산 소장
hansanpark@kiost.ac.krr

4 주요 행사



향후 계획

2022년 해양수산 전망대회

- 일시: 1.19 오후 1시30분~4시40분, Youtube 생중계 (전방발제, 라운드 테이블)
- 26개 주제발표 영상: 사전 녹화 후 Youtube 등을 통해 사전 공개 ('22.1.6(목))
- 주최, 후원기관
 - (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부산 KBS
 - (발표자 및 토론자), OECD 과학총국, KMI 6개 연구부서, 2개부 정책담당자
 - 해양수산 ODA 전망과 향후 추진과제, 한덕훈 대외협력부장 발표 예정
- 주요발표 내용
 - 글로벌 경제성장 속 해양경제의 역할, 해양수산업 중장기 전망, 신해양국가 전략
 - 중장기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수산업 2022년 전망, 항만 물동량 전망,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 해양 부문 삶의 질 개선
 - 해양수산 미래 신기술: 시뮬레이션 기반 해양공간관리 전략, 아쿠아 팜 4.0전략, 디지털 항만 공급사슬 구축전략
 - 해양수산 지속가능한 발전: 2050 해양수산 탄소중립,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 방향, 해양바이오 산업 정책방향, 해상풍력과 해양 정책 방향
 - 글로벌 해양협력의 시대: 북극 전망과 한국의 전략, 해양 중심 한반도 신물류체계, UN 해양법협약 40년, 해양수산 ODA 전망과 향후 추진 과제
 - 미래 세대를 위한 연안경제: 지역 주도 연안경제 활성화 전략, MZ 세대를 위한 해양교육 과제, 국토 외곽지역 신활력 전략

WMU-MOF-KMI CAPFISH 2차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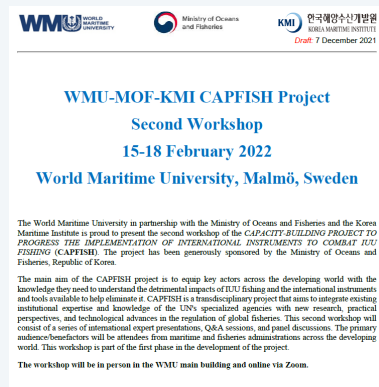
- 2022년 02월 15일(화)~18일(금) 4일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동시 개최 예정
- IUU 어업 근절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CAPFISH) 프로그램 2차 워크숍을 WMU와 KMI가 공동으로 개최. 국제기구 및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표로 이루어진 워크숍으로 IUU 어업 근절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확산, 역량 개발 등 통합적 접근 소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 증진 목적
- 본 CAPFISH 프로젝트는 워크숍 2회 개최와 교육 교재 발간('22년 4월) 포함
- 1차 워크숍(2021년 10월 19일(화)~22일(금))과 프로그램은 동일하나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발표와 토론 시간 재배정 예정

● 주최, 참여기관 및 참석자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세계해사대(WMU),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참여기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해사기구(IMO), 유럽연합 해양수산총국(EU DG MARE),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 퓨 자선기금(Pew Charitable Trusts), 글로벌 피싱워치(GFW),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 시에라리온 대학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등
- (참석자) 업계 전문가, 20개 개도국* 공무원 등(약 50여 명)
 - * 가나, 리베리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몬트세랫, 몰디브,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리즈, 세네갈, 소말리아, 스페인, 인도네시아, 케냐, 키리바시, 파키스탄, 페루, 피지, 필리핀

● 주요내용

- IUU 어업의 글로벌 문제 대응을 위한 유엔기구(FAO, ILO, IMO 등)의 역할
- IUU 어업 근절에 대한 다각적 접근법 소개
- 실무자 및 정부 관점에서 바라보는 IUU 어업
- 해상 안전 및 IUU 어업 근절 관련 사례 연구





기추진 행사

2021년 하반기 OCEANAID

- 일시: 12.2 오후 3시~6시, 온라인
- 주최, 참여기관 및 참석자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참석대상) 해수부 및 소속·유관기관 ODA 사업담당자 30여 명
 - (참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부경대학교 (사)해외어업협력센터, 한국수산물자원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훈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물협력센터 등
- 주요내용
 - 2021년 사업 결과보고 및 관련 건의사항, 2022년 추진 계획 공유

해양수산 ODA 유무상 연계방안 모색 세미나

- 일시: 11.8 오후 5시~6시
- 주최 및 참석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수출입은행 경험총괄과
- 주요내용
 - 해양수산 분야 ODA 지원계획, 해외어항 개발협력 후속 가능 사업, 해양수산 ODA 유무상연계 방안 논의
 - 지속적 해양수산 ODA 유무상 연계 사업발굴 업무협의 및 세미나 후속 진행 논의

2023년 해양수산 신규 ODA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회

- 일시: 11.15 오후 3시~4시, 온라인
- 주제: 2023년 해수부 17개 신규 무상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검토
 - KMI와 KOICA ODA 전문가가 신규 무상사업 신청 서류 등 신청 프로세스 설명 및 주의사항 안내
 - ('22년 1월 중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인 KMI 국제개발협력센터로 신규 무상사업 신청 서류 일체 제출
 - ① 시행계획 초안, ② 수원국 "수송기관" 공문(Official Letter of Request) - 해당 공문은 주재 대사관 통해서 한국 해수부로 송부, ③ 사업제안서(PCP), ④ 사전타당성 조사보고서, ⑤ 환경·사회 영향 스크리닝 설문지 - 필요시
 - ('22년 2월 초) 해양수산 ODA 자문위원회를 통해 시행계획 및 서류 검토→ 보완사항 안내
 - ('22년 2월말) 외교부 필요서류 제출
- 주최, 참여기관 및 참석자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최 및 주관)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개발협력센터
 - (참석대상) 해수부 내 ODA 사업 관련과 및 지원기관
 - (참여기관)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부경대학교 (사)해외어업협력센터, 한국수산물자원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물협력센터 등 해양수산부 ODA 수행기관

202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KMI-동경해양대 국제 세미나

- 2021년 11월 08일(월) 오후 3시~5시, KMI 6층 컴퍼런스룸
 - 해양·수산·해운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일 간 발전 전략 및 협력 계획 발굴을 목적으로 KMI, 동경해양대(TUSAT)가 공동 개최
 - 코로나 상황을 고려, 온라인(ZOOM) · 오프라인 공동 개최
- 기대효과
 - 해양폐기물 해결(SDG 14) 및 AI-항만 발전 등에 대해 집중 논의 후 공동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한일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 사업 확대 도모 및 학문적 발전 강화를 도모
- 주요 발표 및 논의내용
 - 동경해양대 해양 AI 개발 및 평가센터(MAIDEC) 소개
 - 디지털 시대의 한국형 스마트 자동화 항만 & 일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연구
 - 한국의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한중 해운분야 탄소저감정책 세미나

- 2021년 11월 23일(화) 오후 3시~5시, Webinar로 진행
 -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 중립 및 중국의 2060년 탄소 중립을 위한 해운분야 대응방안 점검과 한-중간 협력 모색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련해사대 공동개최
- 기대효과
 - 한-중 해협에서 환경친화적인 해운물류 지속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한국과 중국의 탄소저감 해양 정책 점검
- 참여기관
 - 중국해양대학교, 산둥사회과학원, 현대해양서비스, 대우조선해양
- 주요 논의내용
 - 중국의 해운·항만 부문 탄소 저감 정책
 - 한국의 해운·항만 부문 탄소 정책 방향
 -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정책